

2009년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시행... 로열티 年 20~30억

김·미역 등 신품종 개발 시급

전남, 육종연구 전담 인력 부족 '차질'

오는 2009년 시행 예정인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품종보호제도에 대비해 신품종 개발과 함께 전담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 따르면 전남권에서 80%가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 김과 미역은 일본품종이 30~4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일본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신품종이 개발되지 않을 경우 전남은 연간 20억~30억 정도의 로열티를 지

급해야 한다.

해조류연구센터는 김 4품종을 개발 중에 있지만 육종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1~2명에 불과, 2009년 이전에 일본품종 대체용 신품종 개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해조류연구센터는 현재 연구관 1명·연구사 4명 등 5명 등 행정직도 없는 데다, 각 대학 및 현(縣) 수산기술센터 등에 일본산 해조류 품종등록을 준비하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다.

전남대 등 국내 일부 대학도 신품

종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과다한 투자 비용, 불확실한 결과 등의 이유로 연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면 일본은 지난 1978년부터 해조류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면서 김과 미역을 중심으로 선별·교잡 육종 및 돌연변이 육종을 통해 다수의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오는 2009년부터 한국에서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비, 각 대학 및 현(縣) 수산기술센터 등에 일본산 해조류 품종등록을 준비하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다.

중국 역시 지난 1950년대부터 다시마를 중심으로 다수의 신품종을 개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김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김 신품종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물품종보호제도는 지난 2002년 우리나라가 '국제 식물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주요 농작물에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해 오고 있으며, 오는 2009년에는 수산식물(김·미역·다시마 등)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유사석유 27만ℓ 제조·유통

2명 구속·5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유사석유 27만ℓ를 제조해 광주·전남지역에 유통시킨 정모(47·대전시 중구 유천동) 등 제조업자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장 종업원 배모(35·광주시 남구 주월동)씨와 판매상 추모(35·광주시 북구 운암동)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5월 18일부터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하천 인근 부지에 무허가로 공장 건물을 지은 뒤 '상호산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2억5천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 27만ℓ를 제조해 광주·전남지역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330㎡ 공장 내부에 2만ℓ 용량의 저장 탱크와 혼합기까지 갖춘 뒤 솔벤트·톨루엔·메탄올 등을 6:2:2의 비율로 섞어 유사 휘발유를 만들어 추씨 등 판매책에게 18ℓ 한 통에 1만3천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씨 등 판매책들은 이들에게 사들인 유사휘발유를 광주시 북구 각화동 제2순환도로 등지에서 18ℓ 한통에 1만6천원씩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씨 등이 그동안 전문적으로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왔고, 공장 규모 등으로 미뤄 추씨 이외 다른 판매책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병원 약점 잡아 10억 갈취 사이비기자 등 3명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관 사 강신중)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국검찰신문 전(前) 광주취재본부장 기모(41)씨와 같은 회사 광주취재본부 전 사회부장 문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분사 기획실장 김모(여·2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례 S 요양병원의 행정원장과 이

사직을 겸하고 있던 기씨 등은 올 3~5월 경쟁관계에 있던 전북 순창 S의료재단의 의료비 부담청구 등의 약점을 잡아 자신들의 신문에 보도하거나 관계 당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과 어음 10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광역시의 중심특박을
우리는 3,813 최대단계를
8888 8499 080-222-0100
수원신도시 100리
문의전화 082) 367-9000



기상안내 전광판 '먹통 방지' '먹통'으로 방치되고 있는 나주시 기상안내 전광판. 가로 3m·세로 2m 크기의 이 전광판(7천만원)은 현재 기상·기온·습도·풍속 등을 표시하게 돼 있으나, 올 초부터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있다. /나주=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과잉 父情’

“중학생 아들 급우에 맞았다” 격분 수업 중 교실에 찾아가 ‘보복 폭행’

아들이 같은 반 친구에게 맞아 상처를 입은 것에 화가 난 아버지가 수업 중인 교실에 뛰어 들어가 ‘보복 폭행’을 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시 북구 J중학교 2학년 도덕 수업 시간에 H(46·광주시 북구)씨가 들이닥쳤다. 이 반 H(13)군의 아버지가 수업 중인 교실 뒷문으로 들어가 “이××이가! 누구냐. 일어나”라며 큰소리를 쳤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난 이모(13)군에게 다가가 손과 발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렸다. 당시 교실에는 정모(여·37) 교사와 같은 반 학생 40명이 있었다.

H씨는 자신을 따르는 담담 교사에게 “경찰서에 가도 내가 가면 된다. 말리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H씨와 이군은 정 교사의 중재로 함께 교무실에 갔지만, H씨의 흥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정 교사가 교무실에서 이군에

게 “너는 교실에 들어가 있어야”고 말한 것에 격분한 H씨는 사기로 된 물컵을 이군에게 던져 오른쪽 종아리에 1cm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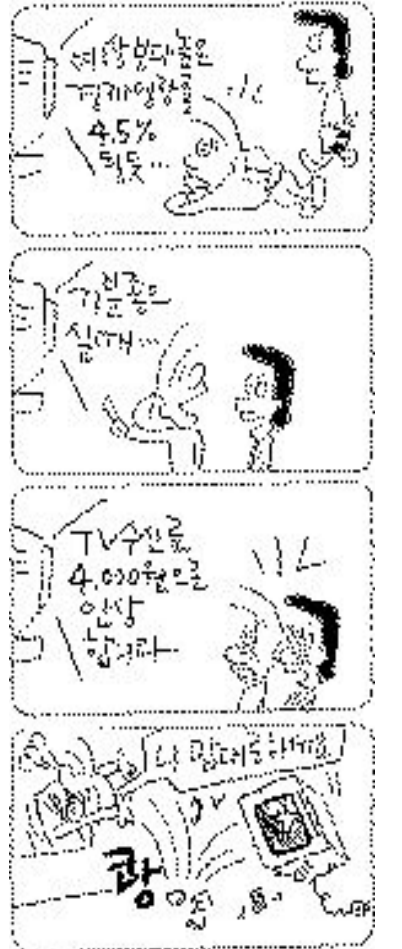
H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아들이 이군과 장난을 치던 중 가로 5cm·세로 10cm 크기의 손거울에 머리를 맞아 상처가 나 병원에 데려간다는 담임 교사의 연락을 받고 학교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경찰에서 “이군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이고 교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 교사는 “한창 수업 중인데, 아버님이 갑자기 뒷문으로 들어오더니 이군을 큰소리로 찾았다”며 “당시 난 교탁앞에서 있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바로 말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아들 친구를 ‘보복 폭행’한 H씨를 10일 폭력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형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258) 김장동



다들 물어봐...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에
KCC함도, 시스텔함도 생산·시공
▶ 02-062914-1001 ▶ 02-062914-1002
(주)본드나리 KCC건설, 연세대에
실리콘·방수재·합착재·타이브
▶ 02-062914-1001 ▶ 02-062914-1002

여성 대리운전 기사 성추행

○여성 대리운전 기사 40대가 경찰에 입건.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8·장흥군)씨는 지난 8일 밤 11시15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S병원 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나모(여·47)씨를 강제추행했다는 것.

○이씨는 신호대기 중 “빨리 가자”며 두 차례에 걸쳐 나씨의 어깨를 쓰다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나씨는 “대리운전을 하려고 차에 타는 순간부터 눈빛이 이상했다”고 말했는데, 이씨는 “술김에 여성 대리 기사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했다”며 뒤늦게 후회.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써 한번 앞서주세요.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par.co.kr
1588-8499 080-222-0100